

# 토정비결

1976년 10월 5일 | 양력 | 여성

토정수

2107

##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한 해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황금빛 이삭으로 익어가듯,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지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운과 명예운이 상승하는 길운이 함께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베푸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찾아올 것입니다. --- ##

###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상쾌한 기운이 감돕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니, 올 한 해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귀한 정보와 조언을 얻게 되니 대화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

### 2월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달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면, 한 해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체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

### 3월

봄기운과 함께 재물운이 살짝 고개를 듭니다. 작은 투자나 저축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인정받을 일이 생기니, 평소 하던 일에 더욱 정성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

### 4월

대인관계에서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지며, 그 중 몇몇은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참여를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행운을 부릅니다. ##

### 5월

가정에 화목한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집안 단장이나 작은 수리를 하면 더욱 좋은 기운이 들어오니, 생활 공간을 정리하고 밝게 꾸미는 것을 권합니다. ##

### 6월

학문이나 자기계발에 힘쓰면 큰 성과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른 진전을 보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미래의 기회로 연결되니 게으름을 피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

### 7월

재물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달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보너스 등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들어온 만큼 나가기도 쉬우니,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 8월

여름의 뜨거운 열기만큼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여행이나 외출이 행운을 가져오니,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 9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중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뻗어 나올 수 있으니, 겸손한 자세로 감사함을 표현하십시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10월

생일이 있는 달로 한 해 중 가장 운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이달에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와 사랑을 받으며,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 11월

차분히 내면을 돌아보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면 더욱 좋습니다.##

## 12월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게 장식되는 달입니다.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풍성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베풀과 나눔의 실천으로 복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토정의 말씀:\*\*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나니,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시면 길운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건강하시고 늘 웃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